

베네수엘라

2003. 9

김진오

(jokim@kiep.go.kr)

I. 일반 개황

□ 자연지리

- 국토면적: 916,445 km²
- 인 구: 2,480만 명(2001년)
- 기 후: 카리브海 인근 온대성, 내륙 아마존지역 열대성
- 시 간 대: GMT보다 4시간 늦음(한국보다 13시간 늦음)

□ 행 정

- 공식국명: 베네수엘라공화국(The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 수 도: 카라카스(280만 명)
- 행정조직: 23개 州, 연방구(Caracas), 2개 연방자치령, 연방속령(72개 島嶼)

□ 정 치

-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6년 임기, 연임 가능)
- 대 통 령: 차베스(Hugo Chávez, 1999년 2월 취임, 2001년 6년 임기로 재집권)
- 의회형태: 단원제(1999년 헌법 개정으로 양원제에서, 165석)
- 주요정당: MVR당(Movimiento Quinta Republica/제5 공화국당, 여당), 민주행동당(Acción Democrático), 기독교사회당(COPEI), 사회주의운동(MAS),

□ 사회·문화

- 민 족: 혼혈인(69%), 백인(20%), 흑인(9%), 인디오(2%)
- 언 어: 스페인어
- 종 교: 카톨릭(인구 90%), 개신교
- 공 휴 일: 독립선언일(4월 19일), 독립기념일(7월 5일)
- 도 량 형: 미터법

□ 한국과의 관계

- 국교수립: 1965년 4월 29일
- 협정체결: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1993년), 문화협정(1995년), 외교관·관용여권비자면제협정(1994년)
- 취향도시: 없음

II. 주요 경제지표

1. 최근 경제동향

항 목	단 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국내총생산(경상) ¹⁾	십억 달러	95.8	102.7	121.2	126.2	98.3	87.9
1인당 GDP(경상) ¹⁾	달러	4,121	4,329	5,014	5,117	3,948	3,469
GDP성장률(실질)	%	0.2	-6.1	3.2	2.8	-8.9	-9.4 ⁵⁾
금리(평균) ²⁾	%	45.21	31.89	23.91	25.64	37.08	28.17 ⁶⁾
공업생산증가율	%	-3.9	-6.4	2.1	-0.4	-12.9	-11.4 ¹⁾
물가상승률(기말)	%	29.9	20.0	15.9	13.4	31.2	30.4 ⁶⁾
실업률(기말)	%	11.2	14.9	13.9	13.4	15.5	19.8⁵⁾
수출	십억 달러	17.6	20.8	33.0	26.7	26.2	9.7 ⁷⁾
수입	"	15.1	13.2	15.5	17.4	12.3	3.9 ⁷⁾
경상수지	"	-3.3	3.6	13.6	3.9	7.7	3.3 ⁷⁾
외환보유고(말기준) ³⁾	십억 달러	14.8	15.4	20.5	18.5	14.9	17.7 ⁶⁾
환율 ⁴⁾ 기말	볼리바르/	564.5	648.2	699.7	763.0	1,401.2	1,600.0 ⁸⁾
평균	달러	547.6	605.7	679.9	723.7	1,160.9	1,600.0 ⁸⁾

주: 1) Global Insight 전망치, 2) 주요 6대 은행 평균 여신금리(프라임레이트 아님),
3) 중앙은행, 거시경제안정투자기금(FIEM, 99.12부터) 포함, 4) 중앙은행 매도기
준, 5) 2분기, 6) 8월 기준, 7) 상반기 기준, 8) 2003.2.6 이후 고정환율 적용.

자료: Banco Central de Venezuela ; Global Insight, 2003. *Latin America and Caribbean: Quarterly Review and Outlook*, Third Quarter ; June 2003.
Venezuela-Summary of Detailed Forecast, Annual Numbers[online]

2. 향후 경제전망

항 목	2003	2004	2005	2006	2007
GDP 성장률(%)	-11.1	5.8	5.2	5.0	5.3
물가상승률(%)	35.7	32.0	24.3	17.5	12.5
실업률(%)	20.5	17.0	16.8	16.2	15.9
경상수지(십억 달러)	5.9	4.6	6.2	7.0	6.5

자료: Global Insight, 2003. *Latin America and Caribbean: Quarterly Review and Outlook*, Third Quarter.

3. 대외경제관계

가. 품목별 수출입(2002~2003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수출(FOB) ¹⁾			수입(FOB)		
	품 목	2002.1~6	2003.1~6	품 목	2002.1~6	2003.1~6
1	일반금속	891	473	전기자재	1,485	572
2	금속제품	617	113	수송자재	1,131	217
3	화학제품	371	87	화학제품	717	404
4	플라스틱제조품	144	27	일반금속	366	149
5	수송자재	160	85	식음료담배	356	186
6	농산물	107	34	플라스틱제품	251	143
총계		2,684	2,247		5,529	2,233

주: 1) 석유 및 철강제품 제외.

자료: 베네수엘라 통계청(INE).

나. 지역별 수출입(2002~2003년)

(단위: 백만 달러)

순 위	수출(FOB) ¹⁾			수입(FOB)		
	국 가	2002.1~6	2003.1~6	국 가	2002.1~6	2003.1~6
1	미 국	1,107	917	미 국	1,796	739
2	콜롬비아	362	279	콜롬비아	430	206
3	Paises Bajos	121	98	브라질	367	142
4	멕시코	126	146	독일	301	95
5	에콰도르	114	82	이탈리아	242	67
총계		2,684	2,247		5,529	2,233

주: 석유 및 철강제품 제외.

자료: 베네수엘라 통계청(INE).

다. 외국인투자

□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1~6
신규투자 ¹⁾	531	1,551	516	585	728	296	1,037
석유광업부문	159	33	237	57	220	12 ²⁾	-

주: 1) 석유부문 투자 제외, 2) 5월 기준.

자료: 외국인투자감독청(SIEX, Superintendencia de Inversiones Extranjeras).

□ 주요 국가별 신규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국 가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Países Bajos(네덜란드)	0	0	0	83	371	71.6
미 국	248	122	98	86	93	54.3
케이만군도	4	1,203	202	35	71	5.6
스위스	9	16	15	43	3	1.7
영 국	47	9	10	6	3	4.3
파나마	38	28	41	27	22	6.5
일 본	8	13	3	51	2	0.5
스페인	118	15	20	60	24	5.8
프랑스	7	10	9	7	7	17.1
영령버진아일랜드	26	19	3	15	3	2.8
한 국	52	0	31	11	0	0
칠 레	1	—	4	—	80	0.05
합 계	705	1,571	748	585	728	296.5

자료: 외국인투자감독청(SIEX).

□ 경제활동 부문별 신규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부문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농축산업	49	0.2	17	4	0.6	3.7
제조업	254	1,358	254	197	279	120.6
건설업	33	19	42	65	2	20.9
도소매업	23	41	80	154	28	14.3
교통창고통신업	5	9	38	77	381	28.9
금융서비스업	163	90	40	43	32	106.9
사회서비스업	0	1	7	10	1	1.1
전기가스수도업	4	30	37	36	3	0
소계	705	1,551	516	585	728	296

자료: 외국인투자감독청(SIEX).

4. 한·베네수엘라 경제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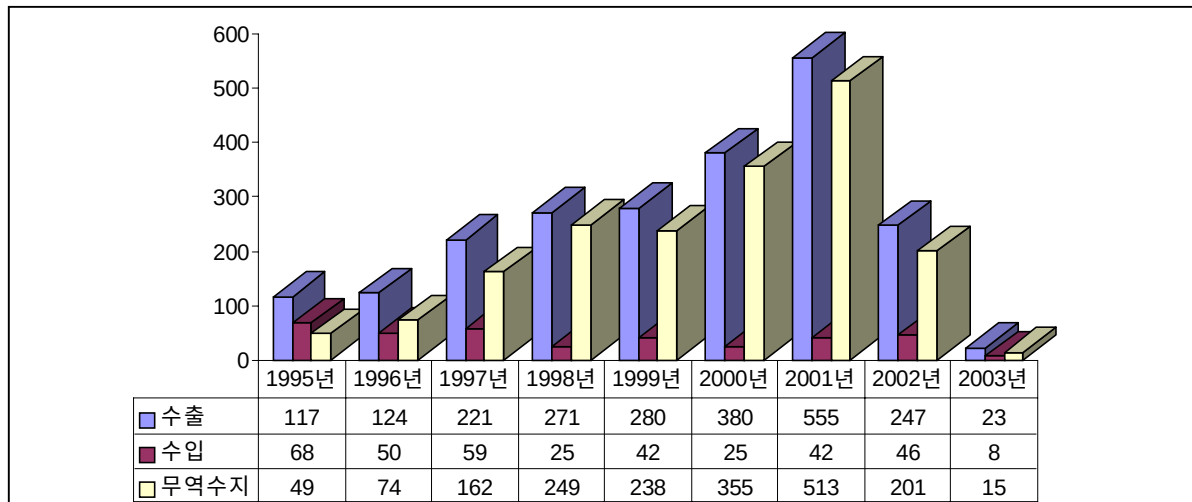
가. 교역

□ 교역비중(2002년 기준)

- 베네수엘라는 한국의 59대 수출국, 74대 수입국
- 한국은 베네수엘라의 7대 수입국(2001년 기준)

□ 한국의 對베네수엘라 연도별 수출입 추이(1995~2003년 7월)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KOTIS).

□ 품목별 수출입 내역(2001~2003년 7월)

(단위: 백만 달러)

수출				수입			
품목	2001	2002	2003.7	품목	2001	2002	2003.7
기계류	329	123	10(-88.8)	광산물	35	22	12(659.6)
전자전기제품	128	76	17(-66.5)	철강금속제품	6	20	4(-70.1)
철강금속제품	25	16	1(-90.4)	농림수산물	0.4	2	2(1,010.6)
잡제품	22	2	3(265.0)	화학공업제품	0.3	0.1	0.2(409.4)
섬유류	15	9	4(-38.2)	플라스틱고무	0.1	0.1	0(-89.6)
플라스틱고무	15	5	0.6(-83.7)	전기전자제품	0.1	0.1	0.9(3,845.6)
화학공업제품	14	11	4(-47.1)	섬유류	0.01	0.3	0(-79.5)
생활용품	4	3	0.2(-86.5)				
농림수산물	2	2	0.5(-55.5)				

주: 괄호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MTI 1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KOTIS).

나. 투자

□ 투자비중

- 베네수엘라는 한국의 45대 해외투자국(2003년 6월말 순투자 기준)

□ 연도별 對베네수엘라 투자 추이

(단위: 천 달러)

	1982-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6	투자잔액	
										총투자	순투자
건수	3	2	1	-	-	1	-	-	-	7	5
금액	860	7,901	43,420	-	-	60	-	-	-	66,491	59,730

주: 1) 1979~95년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업종별 對베네수엘라 투자 내역

(단위: 천 달러)

	한국의 對베네수엘라 투자 ¹⁾	
	건수	금액
광업	0	0
농림어업	1	60
제조업	3	62,931
건설업	0	0
도소매업	3	3,500
무역업	0	0
기타	0	0

주: 1) 2003년 6월 총투자 누계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Ⅲ. 경제현안

1. 베네수엘라의 경제현안

가. 개요

□ 정치·사회적 불안정, 조기 해소 불투명

- 차베스 대통령의 퇴진을 둘러싼 갈등으로 야기된 정치·사회적 불안이 예상과는 달리 조기에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경제회복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중간 신임투표 실시를 위한 기본 사항이었던 국가선거관리위원회(NEC) 위원 임명이 8월 27일 대법원을 통해 마무리되었지만, 9월 12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차베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탄핵 국민투표 청원서의 서명이 무효임을 선언함으로써 정국은 다시 혼란에 직면하고 있음.
- 차베스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 조직된 시민단체(SUMATE)는 지난 2월 2일 유권자 30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탄핵 국민투표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Francisco Carrasquero 선거관리 위원장은 이 서명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 무효사유는,
 - 헌법 제72조에 의하면 탄핵 국민투표 청원은 대통령 임기의 절반이 지난 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서명 접수는 8월 20일 이후 이루어져야 하나 실제로는 6개월 18일 이전에 실시되었음.
 - 서명 접수는 선관위 지정양식에 의하여야 하나 실제 서명접수는 이 양식을 사용하지 않았음.

○선관위에 등록된 기관이 서명을 접수해야 하나 민간단체(SUMATE)가 접수했음.

- 이러한 선관위 발표에 대해 Primero Justicia 등 반대파 일부는 3회(2003년 3월 13일, 6월 5일, 8월 29일)에 걸친 대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서명이 유효함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反차베스 투쟁의 선봉에 있는 민주협의회(Coordinadora Democratica)는 오는 10월 5일 재차 서명을 접수하겠다고 선언하였음.

- 한편, 선관위 발표 이후 차베스 대통령 지지파와 반대파간에는 탄핵 대상자의 임기 중 탄핵 국민투표는 1회만 할 수 있다는 베네수엘라 헌법 제72조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쟁이 일고 있음.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미 국민투표 청원이 이루어지고 이 청원이 거부됐기 때문에 더 이상 청원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고, 반대파들은 완전한 국민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재차 청원할 수 있다는 입장임.

□ 2분기 경제성장률 -8.9% 기록

-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발표(9월 1일)에 따르면 2003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던 1분기의 -27.6%*에 이어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9.4%)을 기록했음.

*지난 6월에 발표된 1분기 성장률 추정치(29.0%)가 수정된 것임.

○이로써 금년 상반기 성장률은 -18.5%를 기록했는데, 이 추세를 유지할 경우 금년도 성장률은 2002년의 -8.9%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1분기보다 2분기 성장률 하락이 완화된 것은 2월 총파업 종식 이후 GDP의 30%를 차지하는 석유산업이 회복된 결과로 판단되는데, 2분기 석유부문 성장률은 1분기의 -47%에서 개선된 -2.9%를 기록했음.

○ 반면, 非석유부문 성장률은 -10.4%를 기록했는데, 통신부문만 0.9%의 성장률을 기록했을 뿐 건설업(-50.7%), 소매업(-17.4%), 제조업(-14.3%) 모두 위축되었음.

- 非석유부문 생산증가율 하락은 베네수엘라 경제의 특성상 특이할 만 한데, 석유부문이 회복되고 공공지출이 증가(2분기 전년동기대비 8.1% 증가)할 경우 전반적으로 同 부문의 성장률은 제고되어 왔음.

- 생산과 더불어 소비부문도 저성장에 기여했는데, 민간소비는 전년동기대비 -5.6%, 총투자와 최종적인 정부지출도 각각 -47.8%와 -2.4로 침체되었음.

□ 외환통제 지속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 2분기 경제회복을 지연시킨 최대 원인은 전술한 바 있는 차베스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 실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및 정치적 불안정과 2월에 실시된 이후 외환시장을 거의 폐쇄한 외환통제에 있었음.

- 상반기에 외환관리당국(CADIVI)은 외환통제 직전 중앙은행에 의하여 시장에 매각된 일일 평균 6,000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일일 평균 990만 달러를 외환시장에 공급했음.

○ 그러한 외환공급량은 심각한 경기침체기에 조차 민간부문의 외환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규모였는데, 외환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수입이 1분기에 44.4%, 2분기에 40.6% 급감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베네수엘라 중앙은행도 상반기 경제실적이 총 국내수요 감소(전년동기대비 -11.6%)와 더불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제한한 외환통제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평가하였음.

○ 상품과 서비스 수입이 베네수엘라 총소비와 생산요소의 60% 이상을 차지함을 감안할 경우 수입 급감은 경제실적 악화에 치명적이었다고 할 수 있음.

□ 8월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 30.4%(연률) 기록

- 총과업 기간동안의 생산중단과 인프라 마비로 생필품 부족사태가 발생하여 물가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외환통제 이후에는 필수품 수입이 격감하면서 물가가 불안한 양상을 보였음.

○그러나 최고치를 기록한 2월(38.7%)이후 하락하던 물가상승률은 5월(연률 35%)과 6월(연률 35.4%)에 재상승 했으나 다시 완화되고 있음.

○8월의 월별 물가상승률은 7월의 1.8%보다 낮은 1.3%를 기록했는데, 그 결과 누적치로는 18.9%를, 연율로는 전년동기의 24.2%를 상회하는 30.4%를 기록했음.

- 가격통제와 외환통제로 인하여 물가가 인위적으로 통제되고 있는데, EIU 등 경기전망 기관들은 금년 물가상승률이 정부 전망치(30%)보다 높은 40%로 1997년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도매물가상승률도 8월에 1.8%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누적치로는 35.9%를 기록했음.

○누적치 기준으로 도매물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두 배를 기록한 것은 기초생필품에 대한 가격통제가 실시되고 판매가 감소한 때문임. 즉, 생산자와 유통업체들의 가격 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실업률 악화

- 경기침체와 더불어 노동시장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데, 2002년 연말 15.5%이던 실업률이 2003년 6월에는 19.3%로 악화되었음.

○同 실업률 수준은 1년 전과 비교할 경우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약 228만 명이 실업 상태에 놓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비록 6월 기준 실업률은 지난 3월의 19.8%에 비해서는 개선된 것이지만, 전년동기 보다는 3.8% 증가하고, 517,892명이 새로 일자리를 잃었음.
- 노동시장 악화와 함께 비공식부문 근로자 수는 급증하고 있는데, 6월 기준으로 국가 총 근로자의 53.7%(전년동기 52.1%)가 비공식부문 고용으로 집계되었음.
- 비공식부문 고용 증가는 同 부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며 임시직이어서 실업률 개선에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경제와 사회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임.
- 노동시장 불안이 심화되자 정부는 7월 중순에 2002년 4월 이후 세 번째로 향후 6개월간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해고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민간부문은 同 조치가 노동시장 유연성을 저해하여 기업도산과 실업증가를 조장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 교역 감소세 지속

- 세계적인 경기침체, 환율상승 등으로 침체를 지속하던 교역(석유 및 철강 제외)은 2003년 상반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5%나 감소하였음.
- 중앙은행이 발표한 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22억 4,7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3%, 수입은 22억 3,000만 달러로 59.6% 감소하였음.
- 수출감소는 원부자재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였고, 수입감소는 연초부터 시작된 철저한 외환통제 결과로 민간부문이 충분한 외화를 공급받지 못한 결과였음.
- 그러나 고유가를 이용한 베네수엘라의 석유수출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수출 규모는 증가함.
- 경기는 회복될 가능성이 낮고 외환통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역

감소 추세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경상수지 흑자 확대

- 베네수엘라는 전통적인 무역 및 경상수지 흑자국으로 2002년 하반기부터 교역감소, 특히 수입급감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가 팽창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급증하고 있음.
- 2003년 2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직전분기(19억 4,900만 달러) 보다도 20.9% 증가한 23억 5,7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동기의 15억 8,300만 달러보다도 48.9% 증가하였음.

○경상수지 흑자 급증은 기본적으로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한 반면, 서비스 및 이전수지 적자가 줄어든 결과였음.

○2분기 수출(석유 및 철강 포함)이 전년동기대비 13.3%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경제활동 침체와 외환통제로 인하여 19억 3,600만 달러로 줄어들면서 무역수지 흑자는 36억 7,900만 달러로 증가했음.

□ 외채관리 집중

- 차베스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성장 및 분배에 집중한 전형적인 대중주의적 경제정책 실시로 재정수입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는데,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세수가 부족하자 국채발행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음.
- 지난 6월초 의회 재무위원회는 내채 규모 제한 필요성을 제기한 중앙은행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약 30억 달러*(4조 8,000억 볼리바르) 규모의 신규 국채 발행을 요청한 정부안을 승인하였음.

*공식환율(1,600볼리바르/달러) 기준

○재무부 공공재정 운용 보고서에 따르면, 5월말 현재 공공내채 누적액은 GDP 대비 10%인 15조 볼리바르(94억 달러)*인데, 2003년 연말에는 18조 볼리

바르를 기록할 것으로 평가하였음.

- 그러한 내채 관리와 함께 외채관리도 금년 차베스 정부의 주요 정책 이슈로 부상하였는데, 지난 7월 18일 발표된 20억 달러의 Brady 채권 차환계획에 따라 7월 말에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15억 달러의 외환표시채를 만기 2010년, coupon 5.375%에 성공적으로 기채하였음.

○조달된 15억 달러는 향후 2년내 만기도래하는 Brady 채권 상환에 투입함으로써 외채 총규모를 줄임은 물론, 저금리를 이용한 상환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 성공적인 기채를 바탕으로 베네수엘라 정부는 8월 13일 의회 재무위원회로부터 금년 말까지 30억 달러의 추가 기채안을 승인받았음.

□ 경제전망

- 금년 하반기 비석유부문 경제활동은 정치적 갈등과 외환통제, 정부지출 등에 의하여 좌우될 전망이다, 최근 국민투표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기보다 심화되고 있어 정부가 외환통제를 완화하거나 정부지출을 증대시키지 않는 한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

- 2003년 성장률은 중앙은행이 실적치를 발표하기 시작한 50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중남미경제위원회(ECLAC)는 -13%, IMF는 -17%로 전망했음.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난 6월에 2003년 성장률 전망을 -10.7%로 발표한데 이어 9월 5일에는 Tobías Nóbrega 재무장관이 런던 투자설명회 와중에 2003년 성장률 전망을 -10~11%로,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을 30%로 재확인하였음.

- 그러나 베네수엘라 재계(Fedecamara)는 9월 4일 중앙은행이 상반기 성장률이 -18.5%를 기록했다는 발표를 한 직후 2003년 성장률이 -20%에 달할 것으

로 전망했음.

나. 주요 경제현안 및 과제

□ 외환통제 지속 여부

- Armando Leon 중앙은행장은 지난 6월 9일 정부에 의한 외환통제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지난 장기 총파업보다 더욱 나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였음.
- 그러한 평가의 기초로 국내기업 가운데 수입품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60%를 상회함을 지적함.
- 중앙은행장의 평가는 지난 6월 8일 차베스 대통령이 지난 4년간 300억 달러의 외환이 유출되었다는 점을 들어 외환통제를 지속할 것임을 발표한 직후여서 주목되었음.
- 한편, 베네수엘라 국가경제위원회(CEN)는 국가증권위원회가 개최한 포럼에서 석유산업 회복에도 불구하고 외환통제 지속에 따른 생산활동 위축으로 2003년 GDP증가율이 -13%에 그치고, 재정적자가 GDP대비 8.9%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외환통제에 대해 중앙은행과 민간부문의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는 외환관리기구(CADIVI)를 통해 해외거주 가족에 대한 송금, 외환통제 실시일인 2003년 1월 22일 이전 체결된 민간부문 외채 지불, 수입을 위한 외환매입 여건을 새로이 규정한 조치를 발표했음(6월 19일).
- 해외거주 가족(1인당)에 대한 송금 규정에 따르면 월 300달러 규모에 한하여 매입할 수 있음.
- 채무자의 경우 외환 금융부채를 조사받기 위하여 외환관리체제사용자등록부(RUSAD)를 작성토록하고, 민간외채분석등록시스템(SARDEPRI)을 설립토록

하였음.

○ 同 규정은 채무를 등록할 경우, CADIVI가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합의된 일정에 따라 외채상환지불을 승인하는데 목적이 있음.

- 특정 제품과 서비스 수입에 해당하는 외환관리 허가 규정 등을 수정하였음.

□ 석유생산 회복 지연

- 지난 2002년 12월초부터 약 2개월간에 걸친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공사 (PDVSA)의 파업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석유생산이 여전히 종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투자은행인 Goldman Sachs에 의하면 베네수엘라의 최근 석유 생산량을 1일 270만 배럴로 이는 종전의 평균 생산량 310만 배럴보다 40만 배럴 정도 낮은 수치임.

- Goldman Sachs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그와 같은 석유 생산량 감소의 대부분은 PDVSA 때문이라고 언급하면서 PDVSA가 생산량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알기는 어려우나 PDVSA의 최근 1일 생산량은 160만 배럴로 종전의 20~25%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음.

○ 또한 PDVSA가 기존의 유정관리 및 새로운 유전탐사에 책정한 금년도 예산 20억 달러는 1일 300만 배럴 수준의 원유 생산을 위해 필요한 50억 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규모라고 지적했음.

- PDVSA 경영진은 총파업 참가를 이유로 전체 5만 명의 직원 중 다수 간부급 직원을 포함한 18,000명을 해고했는데, 이들을 대신해 신규 충원된 직원들은 아직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PDVSA는 총파업 당시 1일 5만 배럴도 생산치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올 1분기 석유생산은 전년동기대비 47.3%, 2분기

에는 2.7% 감소했다고 밝히면서(2002년 2/4분기 중에도 PDVSA 파업 및 정치적 유혈사태 발생으로 석유생산 급감) 금년 하반기에도 전년동기대비 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그러나 PDVSA와 외국업체간 합작투자로 추진되고 있는 오리노코 벨트 지역의 원유생산은 금년 2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하였음.

□ 노동법 개혁 난항

- 의회는 최근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2차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주요 개정 내용이 기업에 불리한 규정이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음.
- 주요 개정안은 1997년 Rafael Caldera 정부에서 완화된 해직수당 산정 규정이 복원되고,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며, 노조선거 감시를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임.

다. 대외경제현안

□ 베네수엘라-아르헨티나, 양자 통상협정 체결

- 지난 8월 19일 차베스 대통령과 Nestor Kirchner 아르헨티나 대통령 간에 통상협정이 체결되었음.
- 협정의 주요 내용은 베네수엘라 석유공사(PDVSA) 휘발유의 대아르헨티나 판매를 위한 50개의 주유소 설치 투자와 아르헨티나의 대베네수엘라 쇠고기 및 우유 직접판매 및 가축(소) 우량품종 개발기술 지원 등임.
- Kirchner 대통령은 향후 양국은 에너지, 농업, 식품, 항공, 우주 및 핵의학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여 양국의 자주적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차베스 대통령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일치단결하여 새로운 발전 모델 및 프로젝트를 창출해야 평등과 정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음.

□ 미국과의 갈등 심화

- 차베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 국민투표 문제를 두고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지난 9월 3일 Charles Shapiro 베네수엘라 주재 미국 대사가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탄핵 국민투표 청원서 서명 문제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언급함으로써 심화되고 있음.
- 이에 대해 차베스 대통령은 9월 7일 대통령 전용 TV 프로그램 "Alo Presidente (Hello President)" 에 출연하여 Shapiro 대사의 행동은 내정간섭이며 베네수엘라의 법을 준수치 않았다고 비난하였음.
- 美 국무부 Roger Noriega 차관은 9월 8일 Shapiro 대사를 두둔하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전혀 무관한 방관자도 아니라고 언급하였음.
- Noriega 차관은 안데안 지역의 민주주의를 해치거나 또는 지역의 안전 및 복지를 위협하는 모든 행동은 베네수엘라 인접국들의 합법적 관심사항이라고 지적하면서 Shapiro 대사가 의미한 것은 필요하다면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단순한 기술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지 결코 베네수엘라 내정에 간섭하거나 베네수엘라 법률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음.
- 지난 2002년 4월 차베스 대통령 지지파와 반대파간 충돌로 발생한 유혈사태, 2002년 12월부터 시작된 약 60일간의 총파업 등에도 불구하고 차베스 대통령 축출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대통령 반대파는 합법적 방법인 탄핵 국민투표를 통해 차베스 대통령을 퇴진시키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일정 정도 개입 자세를 보임에 따라 베네수엘라 정국의 향방은 더욱 예측이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음.

□ WTO 의약품 관세인하 반대로 대외정책 일관성 의문시

- 베네수엘라가 WTO 참가국 중 유일하게 의약품의 관세인하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과문이 일고 있음.

- 지난 2003년 9월 10일 멕시코의 칸쿤에서 개막된 제5차 WTO 각료회의에 앞서 열린 의약품 관련 협상에서 베네수엘라 대표는 무브랜드(generic) 약품의 관세인하에 반대하면서 "협정은 각국의 헌법상의 권리를 해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한 베네수엘라의 주장에 대해 WTO 옵서버들은 146개국이 찬성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력을 갖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베네수엘라의 태도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음.

- 현재까지 WTO 내에서 개발도상국들은 미국, 스위스 등의 거대 제약업체에서 개발된 특허약품의 복제품 구입을 보다 용이하게 해 줄 것을 오랫동안 요구해 왔음.

○그리고 차베스 정부도 각종 국제회의에서 미국 및 유럽의 자본주의 국가에 대해 자신들의 비즈니스 및 무역상의 이익만을 중시하면서 극빈국가에 대한 사회적·인도주의적 지원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여 왔음.

- 이러한 베네수엘라 정부가 갑자기 이번 회의에서 특히 에이즈, 말라리아 등으로 곤경을 겪고 있는 사하라 이남의 극빈국가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는 의약품 관세인하를 반대한 것은 WTO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국내에서도 의문을 자아내고 있음.

○특히, 베네수엘라 자체도 최근 외환통제로 인한 의약품 공급 부족으로 국민 건강 문제가 점점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임.

- 베네수엘라 국내 관계자들은 "세계화"에 반대하면서 다극화를 통해 자신도 한 블록의 리더가 되기를 바라는 차베스 대통령이 이와 같이 상호 모순되는 대외 정책을 실시하면 더욱 고립의 길을 갈 뿐이라며 보다 일관성 있는 국제무역 정책을 추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베네수엘라는 지난 8월의 WTO 농업협상에서도 미국의 농산물 자유무역안에 반대하면서도 상당수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16개 개발도상국이 작성한 대응안에 대해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지지한 바 있음.

2. 한·베네수엘라 경제현안

가. 교역 현황

□ 2003년 들어서는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불안정과 급격한 경기침체, 외환통제 등을 바탕으로 수출은 급감하고 수입은 급증하고 있음.

- 7월까지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76.6% 감소한 4,038만 달러에 그친 반면, 수입은 19.4% 증가한 1,929만 달러를 기록했다.

- 2002년에 최대 수출품(6,778만 달러)이었던 자동차의 경우 2003년 7월까지 제4위 품목으로 하락했는데, 전년동기대비 95.6% 줄어든 246만 달러에 그치고 있음.

○반면, 2002년 2위 수출품(3,957만 달러)이었던 무선통신기기는 금년 7월까지 46.8% 줄어든 1,424만 달러로 제1위 품목으로 자리 잡았고, 자동차 부품은 57.7% 감소한 552만 달러로 제2위의 수출품목으로 부상하였음.

- 한편, 수입원자재에 대한 의존성으로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제조업 제품의 수입(철강금속 -70.1%, 석유류 -79.5%,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89.6%)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전자제품(3,845%), 농림수산물(1,011%), 광산물(660%), 화학공업제품(409%) 수입은 급증하고 있음.

○7월까지 최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수입품은 무선통신기기(18,712%)이고, 최대 수입품은 석유제품(1,132만 달러, 620%)이며 동제품(263만 달러, 760%), 목재류(173만 달러), 알루미늄(137만 달러) 등이 뒤를 따르고 있음.

나. 투자 현황

☐ 한국의 對베네수엘라 직접투자는 미진하고 최근 정체되어 있음.

- 2003년 6월말 현재 한국의 對베네수엘라 직접투자규모(순투자)는 5건에 5,973만 달러에 불과함.
- 한국의 對베네수엘라 산업별 직접투자현황(총투자)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3건(6,293만 달러), 도소매업이 3건(350만 달러), 농림어업이 1건(6만 달러)을 기록 중임.

☐ 베네수엘라의 對韓 직접투자는 자료 없음.

다. 주요 통상현안

☐ 해당사항 없음.